

■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

“2012년 초·중생 무상급식”

6·2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장만채(52) 제16대 전남도교육감은 “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은 전남교육을 만들고, 학생 모두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겠다”고 밝혔다.

장 교육감은 또 직접사업으로 ▲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▲장만채 신문과 운영 ▲공문 50% 줄이기 ▲부지개 학교 운영 ▲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감사 지원 등을 제시했다.

다음은 장 교육감과의 일문일답.

-대표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.

▲2012년부터 유치원과 초·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. 소요 예산은 연간 950억원 정도다.

-무상급식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.

▲그동안 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460억원 정도를 무상급식비로 투입해 왔다. 여기에 20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이다. 이는 선심성 사업과 토건공사 등을 축소하면 된다. 다만 2012년부터는 추가로 초·중학생 수학여행·체육합숙·야영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겠다.

-무상급식과 함께 교복무상 지원 등 무상 의무교육도 약속했는데.

▲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.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준비물과 중학생 학교운영비·교복비를 전액 지급하겠다. 2012년부터는 추가로 초·중학생 수학여행·체육합숙·야영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겠다.

-전남 교육의 낙후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. 해결방안은.

▲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인구가 많다. 먼저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또한 농산어촌의 자율학교인 ‘부지개 학교’도 운영하겠다. 영어회화 전담강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,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폐합도 막아내겠다.

이외에도 낙후지역 교직원 우대 정책,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다.

-비리척결도 주요 공약 중 하나인데,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.

▲우선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‘장만채 신문’을 설치하겠다. 또 유선이나 문서를 통한 제보 등 모든 비리 고발은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겠다. 예방·기동·요청·기회 감사 등 감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, 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서 담당자는 조기 순환시키겠다.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‘제 시구 감싸기식’ 관행을 차단하겠다.

-교육장 공모와 예산·인사 등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.

▲부패척결을 위해서다.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.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주민 중심의 인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했다.

-목표·순천 등에서 고교 비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. 받아들일 것인가.

▲어려운 일이다. 비평준화로 회귀하면 학교시설화와 교육격차 및 위화감이 심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. 또 평준화보다 평준화 때 학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물도 있다. 다만 성적 우수 학생들의 타 지역 유학방지 방안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.

-보충수업과 야간자를 학습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.

▲완전 폐지는 아니다.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. 다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.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형 보충수업으로 전환하고, 야간 자율학습도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.

-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지역민에게 한마디 한마디.

▲짧고 강하게. 청렴과 열정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살리내도록 하겠다.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.

▶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

‘장만채 신문’ 설치·개방형 감사관 임용, 비리 척결

농산어촌특별법 추진...청렴으로 전남교육 살리겠다

軍 기강 잡겠다더니...

군인가족, 작전용 고속단정 타고 ‘유람’하다 전북 당국 “사고 경위 조사중...관련자 엄중조치할 것”

군인 가족과 민간인들이 특수부대 휴양지에서 이 부대 소속 고속단정(RIB)을 타고 ‘유람’을 하다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.

전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수 임무에 사용되는 선박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태안 지역 소재 군 특수부대의 휴양지에서 영광

급 1명(공군 소령)과 위관급 2명, 부사관 2명 등 군인 5명을 비롯해 군인가족 8명, 민간인 2명 등 총 15명이 고속단정을 타고 소원면 모항항 인근 해안지역을 관광하다가 전복 사고를 냈다.

태안해경은 짙은 안개로 쓸물 때만 수면위로 드러나는 ‘간출입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.

도하작전 등에 사용되는 고속단정은 민간인을 태울 수 없는 작전용 선박이다.

계다가 이번에도 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국

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.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선박에 군인가족과 민간인을 태우고 유람을 한 셈이다.

군 당국은 휴가 중이던 현역 장교와 가족들이 관광지 인근 특수부대 휴양지에 들렀다가 탑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

군 관계자는 “고속단정에 탑승한 군인과 군인가족, 민간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 차 군 휴양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”며 “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하게 조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전안함 사건 이후 유·해·공군이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군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사고가 잇따라 터짐에 따라 군 당국은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. /연합뉴스



한민구 합참의장 취임

한민구 합참의장이 5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35·36대 합동참모본부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“북, 한국국적 여 탈북자 3명 납치 총살”

자유북한방송 보도

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머물던 여성 탈북자 3명이 북한에 납치돼 공개 총살 당했다는 소문이 일고 5일 전했다.

이 방송은 중국 연길(延吉)시의 통신원이 함경북도 온성에서 최근 탈출한 주민에게 들은 말을 인용해 3명의 여성 탈

북자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보위부 체포조에 잡혀 지난달 말 온성에서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다.

이들은 지난해 9월 한국에 들어왔으며 올해 봄 중국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.

이 방송은 “이들의 신원과 총살 날짜, 납치된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”며 “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은 중국 방문을 자제해야 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/연합뉴스

폴란드 대통령에 코모로프스키

일 실시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중도 시민강령(PO)의 보르니스라브 코모로프스키(58) 하원의장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

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(이하 현지시간) 95%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코모로프스키 후보가 52.6%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경쟁 상대인 법정의당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후보는 47.4%에 그쳤다고 밝혔다.

선관위는 이날 오후 최종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. /연합뉴스

부동산 정보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.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advertisement.

금당 공인중개사 T.222-4994, 010-2632-5659, 011-782-6266.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.

대인동삼일부동산 (FAX)223-1772.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.

상무랜드공인중개사 (FAX)383-5221.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with table of listings.